

## 민관이 모여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논의

- 10. 16. 문체부 제2차관 주재 지역관광 활성화 협의 1차 회의 개최
- 향후 권역별로 지역 상황에 맞는 관광 활성화 방향 도출

문화체육관광부(장관 유인촌, 이하 문체부)는 10월 16일(월), 문체부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장미란 제2차관 주재로 민관이 함께하는 첫 번째 지역관광 활성화 협의 회의를 개최한다. 이번 회의에서는 대전, 세종, 충북, 충남 권역을 아우르는 충청권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.

2022년 기준 외국인 여행객의 한국여행 방문 지역은 서울이 82.4% (중복응답)로 다른 지역 방문을 대비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관광 활성화의 지역 간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. 소비 증진과 일자리 창출, 외래객 유치로 통한 수출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관광산업은 지역소멸 등 지역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.

이에 문체부는 한국관광에 다양성을 더하고 우리나라가 관광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2차관 주재로 권역별 지역관광 활성화 협의 회의를 개최한다. 회의는 지역별로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과 기반시설 등이 각기 다른 점을 고려해 권역별로 나누어 개최하고, 해당 권역의 지자체와 지방관광조직, 업계가 모여 논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
이번 첫 번째 회의에서는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와 정책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, 지자체, 지역관광조직, 지역 기반 여행사 및 항공사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대전, 세종, 충북, 충남 지역관광을 다룬다. 충청권 지역관광 활성화와 지역관광 수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정책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.

장미란 차관은 “지역의 대표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 관광조직이 힘을 합치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.”라며, “문체부는 한국관광이 더욱 다채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특색을 담은 관광콘텐츠 발굴을 활성화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문체부는 향후 지역별로 관광조직과 민간 관광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권역별 지역관광 협의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며 해당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발전적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	책임자	과장	강지은 (044-203-2811)
		담당자	서기관	서은주 (044-203-2812)

국민과 함께하는  
**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**

**新성장 4.0**  
심심할 땐실로

대한민국  
**지책브리핑**

**OPEN**   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